

논문접수일 : 2014.10.05

심사일 : 2014.10.14

게재확정일 : 2014.10.28

‘길찾기’ 를 위한 공간디자인의 유형과 환경정보적 기능
- 공공청사 로비공간을 중심으로 -

The Types of Spatial Design for ‘Way-finding’ and Environment-Informational
Functions

- Focused on lobby space of government office building -

주저자 : 정보라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실내환경디자인 전공 석사과정

Jung, bo-ra

Department of interior Design, Graduate School of Design, Konkuk University

교신저자 : 류호창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 실내디자인학과 교수

Lyu, Ho-Chang

Department of interior Design, Konkuk University

* 이 논문은 건국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길찾기와 환경정보

- 2.1 길찾기의 개념 및 환경정보적 기능
 - 2.1.1 길찾기의 개념 및 중요성
 - 2.1.2 길찾기와 공간 인지
 - 2.1.3 길찾기를 위한 환경정보
- 2.2 환경정보의 이해
 - 2.2.1 환경정보의 정의
 - 2.2.2 환경정보의 구성요소

3 길찾기를 위한 공간디자인의 유형 및 기능

- 3.1 공간디자인의 유형 분류
- 3.2 공간구조화의 환경정보적 기능
- 3.3 구역차별화의 환경정보적 기능
- 3.4 시각정보화의 환경정보적 기능
- 3.5 랜드마크 구축의 환경정보적 기능

4 공공청사 로비공간 사례분석

- 4.1 공공청사 로비공간의 현황
- 4.2 사례분석 대상 및 범위
- 4.3 사례분석
- 4.4 소결

5 결론

참고문헌

논문요약

오늘날 경제 수준의 향상과 사회변화에 따라 공공청사 로비공간이 점차 대규모화 되고 복합화 됨으로 인해 동선 체계가 매우 복잡해져 사용자들의 방향감 상실이나 목적지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길찾기(way-finding)'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길찾기를 위한 공간디자인의 유형과 그에 따른 환경정보적 기능에 대하여 분석하고, 연구 결과를 기초로 현재 우리나라 공공청사 로비공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조사하여 그 대안을 예시적으로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길찾기를 위한 공간디자인은 공간구조화, 구역차별화, 시각정보화, 랜드마크 구축 등의 4가지 유형으로 정리된다. 각각의 유형과 선행 연구를 통해 추출한 환경정보적 기능과의 연관성을 정리하면, 공간구조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환경정보적 기능으로는 중심성, 개방성, 명료성이 길찾기의 관점으로 분석될 수 있고, 구역차별화는 영역성, 이질성, 집중성으로, 시각정보화는 주목성, 시인성, 식별성으로, 랜드마크 구축은 방향성, 접근성, 정체성으로 분석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한 국내 공공청사 로비공간에 대한 사례분석 결과, 길찾기를 도와주기 위한 공간구조의 특화, 마감재 및 색을 통한 기능적 영역 구분, 사인 체계와 같은 기본적인 공간디자인의 배려가 전반적으로 보이긴 했으나, 사용자를 기준으로 한 환경정보적 관점에서 볼 때 여전히 소극적이고 부분적인 적용에 그치고 있어 공공시설 로비공간에서의 길찾기는 개선의 여지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길찾기, 환경정보, 공공청사 로비공간

Abstract

Along with improved economic level and social concern, the lobby spaces of government office buildings are gradually becoming larger and more multi-functional. As a result, very complex systems of circulation cause problem of way-finding that users have trouble in finding the destination or lose the sense of direction. Hereupon,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nvironment-informational functions of spatial design for way-finding and to survey the present conditions or problems of lobby spaces in Korean government office buildings based on the study results to present the alternative suggestions. The spatial design for way-finding is classified into 4 types: space structuralization, area individualization, visual informationization, and building-landmark. The relationships between environment-informational functions and 4 types of spatial design for way-finding are as followed; the spatial structuralization can be analyzed with environment-informational functions such as centrality, openness, and legibility; the area individualization can be analyzed with territoriality, differentiation and convergence; the visual informationization with visibility, awareness, and discrimination; the building-landmark with directivity, identity, and perceptual access.

The result of analyzing the lobby spaces in domestic government office building shows that the specialized spatial structuralization for helping way-finding, area individualization through finishes and color, and consideration of visual informationization such as sign system were shown in general. But in the environment-informational viewpoint based on the user, it is just being applied in a passive and partial manner so the way-finding at the lobby spaces in government building should still be highly improved.

Keyword

Way-finding, Spatial environmental information, lobby space of government office building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과거의 공공청사는 단순히 업무수행만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곳이었으나, 경제적 수준의 향상과 사회변화에 따라 공공청사의 용도가 기본적인 행정업무와 더불어 지역사회를 위한 복지기능이 부가되는 복합시설로 확장되는 추세이다. 그에 따라 시설의 규모는 점차 대규모화되고 있으며, 그 중 로비공간은 일반적인 대기, 외부와 내부를 연결시키는 연결통로 공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을 넘어서 공공청사에 대한 이미지를 전달하는 주요한 첫 내부공간이며, 청사의 민업무공간으로 이동하는 동선체계의 출발점으로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 그러나 로비공간이 휴식, 홍보 및 전시회, 연주회 등을 위한 공간과 각종 상업적 기능 등이 혼재되는 복합적인 성격의 공간으로 변모하게 됨에 따라 동선 체계가 매우 복잡해져 사용자들이 방향감을 잃거나 목적지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길찾기(Wayfinding)’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런 길찾기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 이후에 시작되었으나 건축적 명료도 모델(A Conceptual Model of Architectural Legibility: Weisman, 1981; O’Neill, 1991), 환경인지 모델(Model of Environmental Cognition: Kaplan, 1973) 등의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80년대 이후이다. 그런 연구들의 대부분은 물리적 환경의 「명료도(legibility)」가 공간의 인지도 형성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로 길찾기를 쉽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안은희, 2004) 이런 전제하에 인지도를 명확하게 하는 방법이나 물리적 환경특성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에 대하여 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 결과, 길찾기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으로는 크게 사인(sign)에 의한 정보와 공간을 통한 정보라는 두 가지 유형을 들고 있다. 그중에서도 사인에 의한 개별적 환경정보는 부수적인 문제이고, 건물의 기본 구성요소인 내부 공간 배치, 즉 공간구조의 문제가 보다 본질적이다.(김소연, 2003)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로 복합화된 공공청사 내에서 길찾기를 위한 공간 디자인 방법을 환경정보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현재 공공청사 로비공간의 길찾기 시스템의 개선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공공청사 로비공간이 점차 대규모화 되고 복잡화 됨에 따라 ‘길찾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정보에 근거한 길찾기를 위한 디

자인의 유형 및 특성에 대하여 분석하고, 현재 우리나라 공공청사 로비공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조사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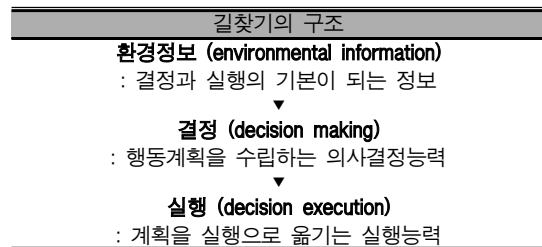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첫째, 기존의 문헌조사를 통하여 길찾기 및 환경정보의 중요성 및 정의를 새롭게 정리해본다. 둘째, 환경정보적 관점에서 길찾기를 위한 공간디자인의 유형을 추출하고, 각 유형의 특성을 정리한다. 셋째, 실증적 분석 과정으로 서울시의 시청 및 자치구청사 중 200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리모델링되거나 신축되어진 사례의 로비공간을 중심으로 현황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다.

2 길찾기와 환경정보

2.1 길찾기의 개념 및 환경정보적 기능

2.1.1 길찾기의 개념 및 중요성

길찾기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나 동물들이 물리적인 공간에서 스스로의 위치를 찾고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모든 방법을 의미하며, 근래에 와서는 주로 건축분야에서 사용되고, 방향을 표현하는 방식이나 주어진 환경 내에서 길을 선택하여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는 건축적인 또는 디자인적인 기본 요소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위키백과) 로메디 파시니(Romedi Passini, 1984)는 길찾기는 인지지도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우며, 다양한 인지적 과정 중에서 특히 물리적 환경을 인지지도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과 함께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의사결정 및 계획을 포함한다고 한다. 즉 길찾기는 보행자가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주변환경 요소를 통한 정보인지는 물론, 판단과 실행의 반복·검토를 통한 총체적인 과정을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박경하, 2012) [표 1]과 같이 길찾기의 구조는 크게 3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다.



[표 1] 길찾기의 구조(박경하, 2012)

환경정보 단계는 사용자가 주변의 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자신이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의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하는 단계이다. 처음 방문하는 곳에서 공간에 대한 정보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사인물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 공간을 여러 번 방문하여 공간에 대한 경험이 늘어갈수록 심적 표상을 길찾기의 정보로 가지게 된다.

결정단계에서는 공간에 대해 수집된 정보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단계이다. 의사결정단계에서는 공간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환경정보가 쉽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마지막 실행단계에서는 결정된 의사에 따라 실제 길찾기 행위를 하게 되는 단계이다. 다시 정리하자면 길찾기 과정은 주변 환경정보를 인식하며,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의사결정을 하고 실행에 옮김으로써 길찾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주변의 환경은 공간을 처음 방문하는 사용자에게 쉽게 인지 및 지각되어야 하며, 결정에 있어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인간은 누구나 이동함에 있어 목적지를 명확하게 가지고 환경 내에서 길찾기를 통해 목적지에 도달하곤 한다. 이동 중 길찾기의 환경이 중요시되는 이유는 길찾기가 용이하지 못한 공간에서는 사용자의 심리적 불안이 수반되기 되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길찾기에 실패했을 때 사람들이 나타내는 정서적 반응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스턴(Boston)시청사에 대한 버클리(Berkeley, 1973)의 연구에 따르면, 시청사를 찾은 시민들이 공간 내부에서 방향성의 혼란을 느끼게 되면 그것이 정부에 대한 반감으로 변한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디슨(Dixon, 1968)은 일리노이 대학 건물의 동선 체계에 대한 연구에서, 건물 내에서 길을 잃은 학생들은 ‘분노’의 감정을 품는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스피박(Spivack, 1967)은 아무런 특징이 없는 무미건조한 복도에서는 시간감과 거리감에 대한 왜곡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이즈미(Izumi, 1970)는 공간속에서 방향감을 상실한다는 것은 곧 신변의 안전에 대해서 불안하게 느낀다는 것을 실증하였다.(이강주, 2003) 또한 병원이나 기타 공공시설에서 직원들은 사람들의 길을 묻는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낭비되는 시간이 상당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병원 근무자의 3분의 1이 매일 한차례 이상의 길찾기 질문에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시간이 경제적으로 환산되는 낭비 역시 크리라는 가정도 가능하다. 즉 열악한 길찾기 환경은 사용자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시간을 낭비시키며 효율을 떨어뜨린다.(김신혜, 2008)

이처럼 규모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길을 잃어버리게 됨으로써 겪게 되는 방향감의 상실은 나이와 성별, 직업, 학벌을 불문하고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길찾기의 문제는 특정 공간의 기능적 측면,

사용자의 경험적 측면, 시설의 이용률 저하에 따른 경제적 측면, 긴급 상황에서의 대피와 관련된 측면 등 여러 방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정무웅 외, 2009) 그러므로, 공간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길찾기와 같은 환경문제는 디자인 설계 과정에서부터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임이 틀림없다.

2.1.2 길찾기와 공간 인지

길찾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사용자의 환경에 대한 지각 및 인지는 길찾기를 위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지(cognition)는 모든 형태의 앎(awareness)에 관계되며, 따라서 감지, 지각, 이미지, 기억, 회상, 추론, 문제해결 및 판단과 평가의 단계들을 포함한다. 즉, 인지는 ‘과거 및 현재의 외부적 환경과 현재 및 미래의 인간행태를 연결 지어 주는 앎 혹은 지식을 얻는 다양한 수단’을 말한다.(김소연, 2003)

인지의 과정		
정보획득 및 감지	>	코드화, 저장, 회상, 디코드화
	>	환경의 위치 및 속성

[표 2] 인지 및 지각요소(김소연, 2003)

이러한 지각과 인지의 과정은 길찾기가 환경적 정보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길찾기는 사람이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있어 기존의 경험, 지식을 기반으로 감각기관을 통해 수집하고 이를 대뇌작용에 의해 이미지화 시켜 심적인 기준의 틀로서 사용하는 것이다. 환경지각은 환경적 사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환경인지는 정보의 해석 평가, 수정을 통하여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를 강조한다.(임승빈, 1993) 그러므로 지각과 인지는 별개의 과정이라기보다는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상호 융합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공간인지는 주로 대규모의 환경에 관계되지만 건물내부 혹은 건물 사이의 공간 등과 같이 소규모의 환경과도 관계가 있으며, 인지는 환경에 대한 정보와 이미지뿐만 아니라 환경의 성격, 구조 등에 대한 인상 및 이와 관련된 의미, 중요성, 상징성 등도 포함한다.(오인욱, 1999) 인간의 감각범위 안에 속하는 소규모의 환경에서는 색채, 형태, 소리 등 감각기관을 통한 지각이 공간을 인지하는데 있는 큰 영향을 미치고, 감각범위 밖에 속하는 대규모 환경에서는 해당 환경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의 역할, 즉 공간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임승빈, 1993)

인지지도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이 길찾기를 수행하는데 있어 2가지의 형태가 나타나는데, 선적 혹은 연속적(liner or sequential)으로 조합된 정보에 의존하는 형식과, 공간적 형체(spatial entity)로 조합된 환경 정보에 의존하는 형식이 있다. 즉, 사람들은 자신들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정보에 시간성을 개입시켜 환경 정보를 나열하고 복합화시켜 선적인 형태로 조직하고, 공간적 형체의 차별성을 통해 공간적 정위를 유지한다.(정진팔, 1996)

2.1.3 길찾기를 위한 환경정보

공간 내에서 환경 이미지에 도움을 주는 환경요소를 물리적 특성이라 하는데, 길찾기를 위한 환경정보적 관점에서 물리적 특성이란 환경요소가 갖고 있는 독립적 성격을 의미하며, 자연물이나 인공물의 위치에 대한 환경정보와 공간 사용자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보를 습득한 후 목적지까지 도달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한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주변 환경에 대하여 지각 및 인지하는 과정을 필요로 하는데, 이때 사용자가 환경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은 주변환경을 통해 직접적으로 지각·인지된 감각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환경에 대한 지식이나 기존의 경험이나 과거의 기억 또한 관여하게 된다. 즉 이러한 길찾기 과정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양한 환경정보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수월한 길찾기를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정보가 선택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환경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2.2 환경정보의 이해

2.2.1 환경정보의 정의

정보의 사전적 정의는 관찰이나 측정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실제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한 지식이라고 하며, 정보를 “뜻을 가지는 자료”라고도 일컫는다. 즉, 데이터를 모아 둔 것이 자료라면 자료를 특정한 목적의 의사결정을 위해 가공한 형태를 정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환경정보란 공간 내에 있는 무수히 많은 디자인 요소를 사용자가 지각하고 인지하는 과정에서 실내디자인 요소를 정보적 관점에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환경’은 살아 있는 것을 제외한 것들을 의미하며, 물리적 환경은 ‘자연환경’과 인간의 손이 가미된 ‘건축환경(Built Environment)’으로 나눌 수 있는데,(배현미 역, 2006) 여기에서 자연환경이란 열, 공기, 빛, 소리 등 몇 개의 요인으로 실내공간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환경이란 사용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공간구성을 위해 인공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것으로, 단순한 장식적 요소로서가 아닌, 목적성이나 과학과 기술에의 의존성을 포용하는 것이다.(윤혜주, 1990)

사용자는 공간 내에서 항상 물리적 환경에 둘러싸여 있고, 주변 환경들과의 상호관계성을 지니고 있다. 사용자는 특정 공간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공간의 크기, 공간의 형태 등은 사용자에게 감각적 영향을 주어 공간의식을 형성시킨다. 그러므로 환경정보란 실내공간의 다양한 디자인요소가 사용자에게 특정 정보로서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2.2.2 환경정보의 구성요소

환경정보로 받아들여지는 각각의 요소들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실내공간의 기본요소를 재정리한 후, 사용자의 정보적 관점에서 수용될 수 있는 요소를 추출하여 환경정보적 요소로 간주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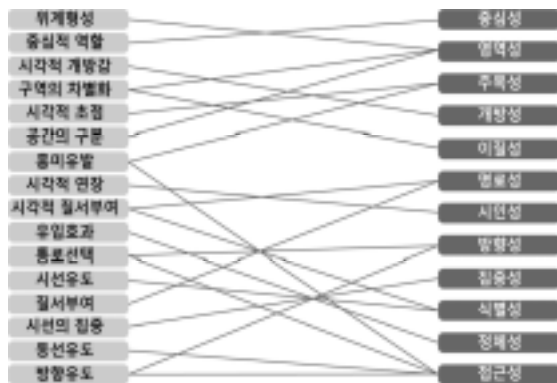
김문덕(2001), 오인욱(2002), 권선국(2011)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실내디자인 구성요소로는 물리적 요소, 구성적 요소, 장식적 요소, 색채적 요소, 심미적 요소, 시각적 요소 등으로 대분류하고 있는데, 각 분류의 세부항목들 중에서 환경정보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항목들을 추출하여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즉 환경정보의 최상위 분류로는 물리적 정보, 구성적 정보, 표현적 정보, 감성적 정보로 재분류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대분류로 정리된 심미적 요소, 장식적 요소, 색채적 요소, 시각적 요소 등은 표현적 정보로 재분류하였고, 세부 항목으로는 색채, 질감, 패턴으로 정리하였다. 반면 자연 채광 및 조명, 소리, 촉감 등은 사용자의 감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감성적 정보로 분류하였다.

구분	구성 요소	구성방법	정보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물리적 정보 (김문덕, 2001 오인욱, 2002 권선국 외, 2011)	공간의 형태 및 크기	블록의 독특한 형태 / 수평·수직적 확장 / 가로세로비 / 개구부 크기	시선의 집중 / 구역의 차별화 / 깊이감 / 폐쇄감 / 공간의 확장감 / 편안함 / 긴장감 / 시선유도
	공간의 분할과 연결	물리적 차단 / 시각적·심미적 구획 / 차단벽의 소재·투시도	시각적 연결 / 호기심 유발 / 개방감 / 폐쇄감 / 시각적·심미적 연결
	등선 (통로) 구성	등선의 방향 / 등선의 흐름 / 등선의 폭(길이)	움직임 유도 / 통로 선택
구성적 정보 (김문덕,	스케일	친밀한 스케일 / 보편적 스케일 / 기능목적 스케일 / 충격적 스케일	중심적 역할 / 위계 형성 / 인공감 / 긴장감 / 시선집중

2001 오인옥, 2002)	리듬	자료 및 패턴의 리듬 / 조망배치 공간형태적 리듬	방향성 / 운동성 / 안 정감
	통일성 과 변화	자료의 통일성과 변화 / 공간 형태의 통일성 과 변화	질서 / 조화 / 균질감 / 간장감
	강조	오버제를 통한 강조 / 색이나 밝기를 통한 강조	시각적 초점 / 흥미 발 / 우계감 / 긴장감
표현적 정보 (김문덕, 2001 오인옥, 2002 권선국 외, 2011)	색채	색상 / 명도 / 채도 / 대비	공간의 구분 / 시선유 도 / 쾌적함 / 온도감
	질감	촉각적 질감 / 시각적 질감 / 빛의 반사와 흡수 / 의식적 질감	이함 / 청결함 / 통 일감 / 변화감 / 조화 감 / 이질감
	패턴	패턴의 방향성 / 패턴의 상대적 크기	운동감 / 방향 유도 / 통일감 / 일체감
감성적 정보 (김문덕, 2001 오인옥, 2002)	자재 광 및 조명	재판면의 위치 크기(상대적 크기) / 조명구의 배치 및 형태 / 조도변화	시각적 개방감 / 방향 유도 / 집중 호 과
	청각 요소 (음향 및 소음)	소리의 내용 / 음향 / 음원의 위치 / 백색 소음	호기심 유발 / 정보제 공
	후각 요소 (향기 및 약취)	향의 종류 / 향원의 위치	쾌적함 / 호기심 유발 / 거부감
	공조 및 기류	와기의 유입량 / 실내온도 / 공조 바람 의 세기	청량감 / 불쾌감 / 안 온감

[표 3] 환경정보의 분류 및 세부항목

정보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근거로 환경정보의 기능을 종합정리하면, 사용자의 방향유도에 도움을 주기 위한 방향성, 구역의 차별화를 위한 이질성, 공간의 대비감을 부여하여 시각적 초점을 주는 주목성, 시선의 집중 및 시각적 연장효과를 주는 시인성, 집중성, 식별성, 정체성을 통한 동선의 선택, 위계형성을 부여한 영역성, 공간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중심성, 시각적 개방성, 공간의 질서를 부여하는 명료성,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통한 접근성 등의 항목이 도출되었다. (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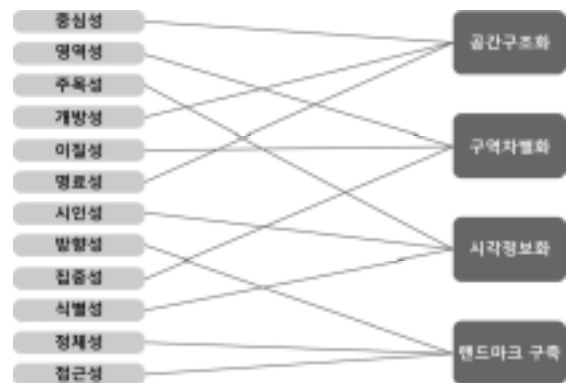


[그림 1] 환경정보의 기능

3 길찾기를 위한 공간디자인의 유형 및 기능

3.1 공간디자인의 유형 분류

바이즈만(G. D. Weisman, 1981)은 길찾기의 환경 조건으로 평면의 구성, 시지각적 접근성, 건축적 이질성, 안내표시체계를 꼽았고, 쿠부쿠(Cubukcu, 2003)는 3단계의 강도로 구역차별화된 가상공간에 대한 네비게이션 실험을 통하여 높은 강도의 구역차별성이 장소에 대한 정보 습득에 도움을 주고 길찾기 수행도를 향상시킨다는 사실을 검증하였다. 카프만(Carpman, 2002)과 알렌(Allen, 1999)도 구역인지의 도움을 주는 건축 디자인, 실내 디자인 및 사인체계의 차별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외에도 남성진(2006)은 랜드마크를 인지적 기능, 연상적 기능, 심미적 기능으로 분류하여 실내공간에서의 개체를 통한 차별화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큰 영역을 소영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영역에 차별성을 주는 영역의 차별화가 길찾기를 용이하게 하는 환경적 요소로 작용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런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추출한 다양한 환경정보의 기능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간디자인 유형들을 공간구조화, 구역차별화, 시각정보화, 랜드마크 구축 4가지로 정리하였다.(그림 2 참조)



[그림 2] 길찾기를 위한 공간디자인의 유형

3.2 공간구조화의 환경정보적 기능

(1) 중심성

획일화된 공간에서는 공간구조를 통해 중심성을 강조함으로써 혼란을 감소시킬 수 있다. 식별성을 높여주는 중심성을 공간에 부여함으로써 명확한 인지도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정진팔, 1996) 중심성이 부각되는 공간적 구조를 기준으로 패턴 활용, 색채의 조합, 스케일의 변화, 축선에 따른 배치 등을 이용하면 사용자가 정위성을 더욱 쉽게 확보할 수 있어 길찾기가 용이해진다.

(2) 개방성

중앙에 아트리움과 같은 공간구조를 도입하여 내

부공간의 연계성을 강화시키거나, 층간을 오픈 공간으로 처리하여 공간에 개방감과 함께 위계적 질서를 부여함으로써 그 공간을 기준으로 진로인지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트리움은 평면적으로는 시각적 접근성을 확대시키고, 공간의 보이드(void) 처리는 수직적 접근성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시켜 시야 범위가 확장됨으로써 목적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기중, 2007)

(3) 명료성

사용자가 심적 이미지나 공간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인지지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명료성은 공간 내부에 진입하였을 때 공간의 전체적인 시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복잡한 공간구조나 동선구조는 방향 감각을 상실시켜 길찾기에 있어 큰 혼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동선계획시 주 통로와 부 통로를 구분하여 동선체계의 위계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성격이 같은 기능의 공간끼리 구조를 같게 한다거나, 특징적인 요소들을 삽입함으로써 공간구조적 명료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3.3 구역차별화의 환경정보적 기능

(1) 영역성

영역 나눔을 통한 차별화 전략의 일환으로 큰 구역을 여러 소구역으로 나누고, 층간의 구분을 명확히 하거나, 천장의 레벨 변화, 기둥이나 모서리를 이용한 영역구분, 개방과 폐쇄 정도의 조절 등으로 영역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임경아, 1997) 더불어, 각 구역의 장소적 아이덴티티를 부여하여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는 자신의 위치를 기준으로 목적지까지의 효율적인 동선 파악이 용이해진다.

(2) 이질성

마감재나 컬러, 조명의 색이나 배치 등을 이용한 구역간의 이질성은 사용자들에게 용이한 시각적 변별력을 제공해주고, 선명한 이질감은 길찾기를 위한 정위감이나 방향성의 기준으로 작용한다. 색채 사용시 주목성이 높은 색채를 선택하여 영역에 대한 식별성을 높이거나 바닥, 벽, 천장 등의 색채를 통일하여 일치성을 높인다면 영역 구분을 더욱 명확하게 할 수 있다.(박혜경, 2007)

(3) 집중성

마감재 및 패턴, 컬러, 조명 등을 사용하여 구역 차별화를 부각시키게 되면 사용자의 시선과 관심을 집중시키게 되고, 부각된 특징들은 강렬하게 인식되어 인지지도 형성에 큰 도움이 된다. 결과적으로 길찾기를 위한 시각적 단서로서 공간인지의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시인성이 우수하고 다양한 기술이 적용된 조명을 이용하여 공간의 집중성을 높임으로써 구역차별화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조명 및 마감재를 활용하여 공간의 심미성 향상과 더불어 동선체계에 대한 집중성을 부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진로인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3.4 시각정보화의 환경정보적 기능

(1) 주목성

구체적인 정보를 효과적으로 시각화하면 사람들의 정보에 대한 본능적인 관심을 활용하여 주목성과 함께 정보전달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정보를 시각화하는 방법은 직접적으로 텍스트를 사용하는 방법과 함께 칼라 코드화(color coding), 픽토그램 등을 활용한 수퍼 그래픽 등을 통해 주목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Malkin(1989)은 일반대중은 전문가인 디자이너들만큼 색을 인식하거나 기억하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길찾기에는 공간적 기능과 연상성이 크고 명시성이 높은 색채를 활용하여 공간 내부에 시각적 특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2) 시인성

시인성이 강조된 사인체계는 문자정보를 전달하는 언어적 기능과 동시에 사용자에게 시각정보를 전달하는 메시지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정보들은 공간에서의 길찾기에 도움을 주는 인지적 요소로서 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시각정보들은 사용자가 정지 상태에서 정보를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보행과 같은 연속된 동작 중에 정보를 지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원거리에서도 판독성을 배려한 사인체계가 매우 중요하다.

(3) 식별성

시각정보를 논리적이면서 단순하게 디자인하는 것은 시각정보에 대한 이용자들의 개념을 돕고 정보의 과부하 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다.(김신혜, 2008) 통로, 공간의 모서리, 로비, 출입구, 코어 등 길찾기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소에 독특한 이미지를 부여하여 식별성을 강화시킴으로써 정보에 대한 해석의 정확성이 강화되며,(송현지, 2013) 목적 공간으로의 이동 동선의 흐름 및 방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3.5 랜드마크 구축의 환경정보적 기능

(1) 방향성

방향성은 이동의 수월함을 부여하는 요소이다. 목적지를 찾는 길찾기 과정에서 사용자가 자신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과거 혹은 현재 경험했던 경로를 기억하여 바른 판단을 하는 것을 도와주는 하나의 장소지

시적 환경정보로서의 기능을 가진다.(정진우, 2011) 그런 관점에서 랜드마크는 사람들이 방향을 바꿔야 할 지점의 정보를 알려주거나, 그 지점에서 가야할 방향 정보를 제공한다. 공간구조가 고려되어 적절하게 계획된 랜드마크는 방향을 결정짓는 기준점으로 작용하여 공간의 흐름과 동선유도에 도움을 준다.

(2) 접근성

랜드마크의 규모가 크거나 특이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에게 쉽게 기억되며, 개인에 따라 특별한 관계가 있는 랜드마크는 그 사람에게 있어 깊은 인상을 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한기중, 2007)

따라서 효과적인 랜드마크는 사용자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유인효과를 줌으로써 방향의 선택과 이동을 위한 위치적 도움을 주며, 친밀감있는 랜드마크는 그 공간으로의 접근성을 확대시킨다. 적재적소에 특색 있는 조형물이나 오브제와 같은 요소를 배치하여 시각적 연계성을 형성시키면 사용자에게 조직적인 진로 인지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3) 정체성

랜드마크의 기본적 역할은 심미적 기능, 사용자의 과거 경험이나 기억과의 연상적 기능, 위치에 대한 물리적 환경정보적 기능과 함께 특정 공간의 기능이나 위치를 암시하는 정체성을 제공함으로써 길찾기를 용이하게 한다. 따라서 형태, 색채, 스케일, 시각적 특이성 등을 활용하여 명료한 이미지를 전달하는 랜드마크의 정체성은 곧 장소의 정체성이 되고, 용이한 길찾기의 핵심적 역할을 한다.

4. 공공청사 로비공간 사례분석

4.1 공공청사 로비공간의 현황

공공청사 로비공간은 과거와 달리 경제적 수준의 향상과 사회변화에 따라 시설 규모는 점차 대규모화 되고 있다. 그 중 로비공간은 일반적인 대기, 외부와 내부를 연결시키는 연결통로 공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을 넘어서 공공청사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첫 내부공간이며, 다양한 대민공간으로 이동하는 동선체계의 출발점이다. 또한 로비공간 내부에 휴식공간, 홍보 및 전시회, 연주회와 같은 문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공간과 각종 상업적 기능 등이 혼재되는 복합적 성격의 공간으로 변모하게 됨에 따라 동선체계가 매우 복잡해짐으로써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다양한 기능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비효율적인 동선계획과 단속적인 통로 계획은 원활한 동선의 흐름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목적하는 공간으로 효율적으로 유도될 수 있는 길찾

기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로비 전체를 헤매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길찾기가 용이하게 조성되어 있지 않으면 방향감각에 혼란을 느끼게 되고, 공공시설을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으로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재방문을 꺼리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공공청사 로비공간의 길찾기 문제점을 야기하는 또 다른 원인으로는, 공공청사의 공간부족으로 인해 무계획적으로 진행된 증·개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로와 같은 동선의 중첩적 구성이다. 신축의 경우에도 지나치게 대규모화됨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길찾기의 어려움이다. 더불어 공공청사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절제되고 획일화된 공간계획이 선호되어 왔다는 점이다. 이상과 같이 공공청사 로비공간의 길찾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길찾기의 부정적 요인	문제점
기능의 혼재	기능과 용도의 다양화로 인한 동선의 복잡성
공공청사의 대규모화	건물의 대형화로 인한 방향감각 상실
중축·개축의 문제	폐쇄적이고 미로 같은 동선 계획으로 인한 길찾기의 어려움
특색 없는 획일화된 공간	오래된 공공청사 건물은 일반적으로 공간들의 차별적 특성이 부족하고, 모든 복도는 미로적 구성을 하고 있음에도 획일적인 디자인으로 인하여 정위감 및 방향감각 상실

[표 4] 공공청사 로비공간 길찾기의 부정적 요인

이와 같은 공공청사 로비공간 길찾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심리적인 압박과 시간낭비, 스트레스 증가와 같은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결과적으로 공공서비스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확대시킨다.

4.2 사례분석 대상 및 범위

사례분석 대상의 범위는 서울시의 시청 및 자치구청사 로비공간 중에서 200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리모델링되었거나 신축되어진 사례 중에서 6개를 임의로 선정하여 직접 방문 조사하였다. 분석의 목적이 연구를 통해 추출된 길찾기를 위한 공간디자인의 4가지 유형과 기능의 실효성과 적용여부를 현장에서 재확인해보고, 디자인 제언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국한시킬 뿐 통계적 의미는 없으므로 사례 선정기준의 엄격성은 무시하였다.

4.3 사례분석

[표 5] 사례분석 1

▶ 범례 : ○-미흡, ◐-보통, ●-우수

NO	개요	이미지	공간디자인 유형 및 기능																
			구분	공간구조화			구역차별화			시각정보화			랜드마크 구축						
				중심성	개방성	명료성	영역성	이질성	집중성	주목성	시인성	식별성	방향성	접근성	정체성				
1	프로젝트명	서울 시청		현황	●	●	◐	○	●	◐	●	◐	○	○	●	●			
	위치	서울 중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직적 공간구조와 커튼월을 통한 개방성과 거대한 벽면녹화 구조물이 전체 공간의 중심적 역할을 함 - 선형적 구조의 로비공간에 동일한 형태의 개구부가 반복됨으로써 공간적 구분이 명료하지 않아 동선의 혼란 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화된 벽면을 통해 중앙 영역을 확연하게 구분하고 있으나 자칫하게 획일화됨 - 유사한 입면 형태에 선형적 반복 배치로 인해 구역의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목적 공간으로의 동선 파악이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 및 정지상태에서 시각정보로 인지될 수 있는 Sign 체계의 미흡으로 출입구 및 계단 에스컬레이트 등과 같은 수직동선의 파악 어려움 - 절제된 색과 마감재의 사용으로 개별 공간에 대한 식별이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벽면녹화를 사용한 거대한 구조물이 강한 랜드마크 역할을 함 - 단일 성격의 벽면 녹화가 강한 이미지를 형성하여 접근성을 유도하고 있으나 공간기능별 차별화는 이루지 못하여 정체성이 미흡함 											
	준공연도	2012. 9																	
	설계	유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벽면녹화의 분할을 통해 세분화된 공간 기능의 변별력 확보 - 개구부 및 안내 데스크 등을 공간구조적으로 특화하여 공간의 중심성과 명료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획일화된 출입구의 개방 및 폐쇄 정도를 조절하여 차별화된 영역성 강화 - 다양한 마감재나 컬러를 이용하여 특정 구역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동선의 기준 역할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텍스트나 픽토그램 등과 같은 문자 정보를 도입하여 직접적으로 동선 유도 - color coding, 적극적인 색의 적용, 마감재료의 이미지화 등을 통해 시인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소재를 이용하여 벽면녹화를 구역별로 특화시킴으로써 공간기능별 정체성 확보 - 조형물 설치를 통한 동선의 기준점과 방향성 제고 							
프로젝트명	용산 구청		현황	◐	●	●	○	◐					○	◐	◐	◐	○	◐	○
위치	서울 용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적인 공간계획으로 전체적인 공간구성의 시야 확보가 용이함 - 공간구조를 통해 영역이나 공간기능에 대한 변별력 제공하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한 마감재 사용으로 기능별 영역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 - 명확치 않은 구획 나눔으로 목적 공간으로의 집중성이 부족하여 혼란 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적이지 않은 Sign 체계로 인한 동선의 혼란 유발 - 계단 및 엘리베이터와 같은 수직이동의 주목성 및 시인성 부족으로 원활한 사용이 미흡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향을 결정짓는 기준점으로 작용하는 랜드마크의 부재로 접근성 및 정체성 저조 - 기능구분별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는 요소 부재 												
준공연도	2010. 3																		
설계	공간건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자닌층의 수평 벽면 활용 및 특화된 공간구조를 형성하여 명료한 정위감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이 다른 공간간의 마감재 및 컬러의 이질성 부여 - 구역 분리를 통한 영역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산 배치되어 있는 현수막 및 배너 정보를 특정 공간에 집중시켜 시인성 및 식별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특이 요소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방향성 및 정체성 확보 								
프로젝트명	송파 구청		현황	○	◐	●	●					●	○	◐	●	◐	○	◐	◐
위치	서울 송파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에 따른 명료한 공간구획으로 주동선과 부 동선의 연결이 원활함 - 로비 진입시 시선을 이용한 평면적 변화로 공간의 전체적인 시야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닥 마감재를 이용한 영역의 차별화로 길찾기 용이 - 조명과 마감재를 활용하여 특정 공간을 적절히 부각시킴 - 명확한 이동 동선 영역의 차별화로 혼잡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선적 요소를 통한 시인성 확보로 보행과 같은 연속된 동작 중에도 시각정보를 쉽게 전달 - 절제된 디자인으로 인한 특정 공간의 주목성 및 식별성 다소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데스크의 랜드마크적 역할 미약 - 조명을 통한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으나 소극적인 도입으로 인한 사용자의 방위정보 확보 미흡 												
준공연도	2008. 12																		
설계	전어 소시에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소 평면적인 공간구성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둥 및 계단과 같은 구조체를 부각시켜 사용자의 위치파악에 도움을 줘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륨감 있는 영역을 형성하여 장소적 아이덴티티 부여 - 조명을 통한 공간의 집중성 확보로 인지도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한 색채 사용으로 인한 시각적 주목성 확보 - 주목성있는 시각 정보를 제공하여 목적공간으로의 효율적 동선 선택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브제와 같은 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사용자에게 방향의 선택과 이동을 위한 위치적 도움을 주며 장소적 정체성 확보 								

[표 6] 사례분석 2

▶ 범례 : ○-미흡, ◐-보통, ●-우수

NO	개요	이미지	공간디자인 유형 및														
			공간구조화			구역차별화			시각정보화			랜드마크 구축					
			구 중 심 성	개 방 성	명 료 성	영 역 성	이 질 성	집 중 성	주 목 성	시 인 성	식 별 성	방 향 성	접 근 성	정 체 성			
4	프로젝트명	금천구청				○	●	◐	●	●	●	●	○	◐	○	◐	●
	위치	서울 금천구				현황											
	준공연도	2008. 11				제언											
	설계	희림건축				<p>- 획일적인 공간구성에 비해 공간적 중심성이 확보되지 않아 이용자의 정위감 확보에 어려움</p> <p>- 공간 기능의 밀집으로 인한 동선의 중첩으로 길찾기 과정에서 혼란 유발</p> <p>- 볼륨감 있는 동 형태와 바닥 미감을 통한 영역 형성으로 공간의 차별화 확보</p> <p>- 기능에 따른 구획 나눔과 미감의 차별로 구역의 이질성 및 집중성 확보</p> <p>- 이질성 있는 바닥 미감으로 이용자의 시각적 주목성 부여</p> <p>- 시인성이 낮은 저채도 계열의 마감재도 계열의 마감재 사용으로 이용자의 공간 차별화 미흡</p> <p>- 기동 및 벽체의 공간을 활용하여 장소의 정체성 부여</p> <p>- 공간의 기능이나 위치를 암시하는 랜드마크적 요소의 미흡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정위감 상실이 우려됨</p> <p>- 공간 기능에 따른 영역을 분산 배치함으로써 구조적 명료성을 형성하여 동선의 혼잡 방지</p> <p>- 다양한 기능적 공간 위치의 구조적 단서 제공</p> <p>- 주목성이 높은 마감 및 컬러를 적절히 사용하여 시각적 변별력 제공</p> <p>- 적절한 조도분포 기법을 활용한 구역 차별화로 집중성 확보 및 동선 유도</p> <p>- 시인성이 강조된 컬러 코드화(color coding)를 적용하여 정보전달의 효율성 제공</p> <p>- 길찾기를 용이하게 하는 체계적인 Sign체계의 도입</p> <p>- 선형적 평면배치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랜드마크를 활용하여 평면의 분절화 시도</p> <p>- 기동이나 벽과 같은 건축요소를 활용한 랜드마크화</p>											
5	프로젝트명	마포구청				◐	●	◐	○	○	◐	◐	●	○	○	●	○
	위치	서울 마포구				현황											
	준공연도	2008. 10				제언											
	설계	공간건축				<p>- 부분적인 수직적 확장구조를 통해 개방성 및 중심성 부여</p> <p>- 열주를 강조하여 선형적 동선체계를 명확히 부가</p> <p>- 다소 차나치게 단일화된 공용공간의 구성</p> <p>- 공용로비의 기능별 구역화로 목적 장소의 명확성 확보</p> <p>- 선형적 단일 로비 공간에 동선 유도를 위한 구조적 요소 부가</p> <p>- 마감재 및 컬러와 같은 시각적 변별력을 제공해 주는 요소의 미흡으로 공간 기능에 따른 영역의 차별화 부족</p> <p>- 로비공간에서 휴게공간 등의 공간구획의 인지성 부족</p> <p>- 대형 그래픽을 활용해 인포메이션 위치를 명확히 제시하여 시각 정보를 통한 주목성 부여</p> <p>- 무채색 계열의 마감재 사용으로 획일화된 공간으로 인지될 우려가 있음</p> <p>- 포인트 컬러나 재료를 사용하여 공간에 식별성을 부여하여 목적지로의 단서 제공</p> <p>- 수퍼그래픽의 적용 가능성 검토</p> <p>- 형태, 색채, 스케일 변화 등을 활용하여 랜드마크적 요소 도입</p> <p>- 특정 장소에 시각적 특이성을 부여하여 공간의 정체성 확보</p>											
6	프로젝트명	관악구청				◐	◐	○	●	●	◐	●	●	○	●	●	◐
	위치	서울 관악구				현황											
	준공연도	2007. 10				제언											
	설계	희림건축				<p>- 계단과 같은 수직적 공간구조를 통한 동적이고 자연스러운 동선 계획</p> <p>- 확장감 있는 개구부 형성으로 공간구조적 중심성 확보</p> <p>- 조명방식, 재료와 색채 등으로 구역을 차별화시키는 시도가 있으나 부분적인 동선의 중복으로 인해 혼란스러움</p> <p>- 바닥, 천장의 단차 등을 도입하여 명확한 영역 구축</p> <p>- 다소 복잡한 천장 계획을 동선 유도 중심으로 개편</p> <p>- 공간 진입부에 포인트 컬러 사용으로 주목성 확보</p> <p>- 환경정보의 과부하로 인한 정보전달력 감소</p> <p>- 시각 정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문자정보 등과 같은 사인 시스템을 체계화하여 동선 유도의 효율성 제고</p> <p>- 계단에 과감한 형태와 색을 적용하여 집중력 있는 랜드마크 크로서의 역할 담당</p> <p>- 차별화된 공간 블록을 랜드마크로 활용</p> <p>- 주 동선과 부 동선의 명확한 기능적 분리를 통해 각 공간의 구성적 질서를 부여하여 동선 체계의 위계 형성</p> <p>- 오브제와 같은 조형적 요소의 도입으로 화귀적 동선의 기준점 제공</p> <p>- 표피적으로 형성된 랜드마크의 공간적 요소 접합</p>											

4.4. 소결

국내 공공청사 로비공간에 대한 사례분석 결과, 공간구조의 특화, 마감재 및 색을 통한 기능적 영역 구분, 사인 체계와 같은 길찾기를 위한 기본적인 공간디자인의 배려가 전반적으로 보이긴 했으나, 사용자를 기준으로 한 환경정보적 관점에서 볼 때 여전히 소극적이고 부분적인 적용에 그치고 있어 공공청사 로비공간에서의 길찾기는 개선의 여지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트리움과 같은 수직적 공간확장을 통해 중심성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많이 보여지고는 있으나 공간구조적 접근에만 국한되어 있고, 재료나 형태를 이용한 영역 구분, 명시성 높은 시각정보화 작업 등 구체적이고 상세한 디자인 적용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둘째, 기능에 따른 공간 구획을 적용하고는 있으나 소극적인 적용으로 사용자의 인지지도 형성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므로 기능에 따른 확실한 구역차별화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일부 사례에서는 절제되지 않은 컬러 및 패턴의 사용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길찾기 과정에 오히려 혼란스러움이 예상되므로 주목성 및 시인성을 위한 디자인의 적절한 안배가 요구된다. 넷째, 대형 벽면녹화나 독특한 공간구조와 같은 요소의 도입이 공간을 특화시키고 전체 시설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는 있으나 사용자로 하여금 방향성이나 동선 선택에 직접적 도움을 주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존 공공시설로서의 확립화된 경향, 소극적인 디자인 적용, 환경정보적 분석 미흡과 같이 여전히 보완할 점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론

공공청사 로비공간이 점차 대규모화 되고 다양한 기능의 복합화로 인하여 동선 체계가 매우 복잡해져 사용자들의 방향감 상실이나 목적지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길찾기'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길찾기를 위한 공간디자인의 유형에 따른 환경정보적 기능에 대하여 분석하고, 연구 결과를 기초로 현재 우리나라 공공청사 로비공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길찾기를 위한 공간디자인의 유형을 공간구조화, 구역차별화, 시각정보화, 랜드마크 구축 등 4가지로 분류하였고, 각각의 유형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구조화를 위한 방법으로 사용자의 정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식별성을 높여주는 중심성 강조, 아트리움과 같은 공간구조를 도입하여 내부공간의 연계성을 강화시키거나, 층간을 오픈시켜 공간

에 개방성을 부여하는 방법, 공간 구조를 특화시켜 구조적 명료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 실제 사례의 경우 층간을 오픈한 수직구조 및 에스컬레이터의 사용으로 사용자의 시각적 접근성은 용이하나 지나치게 정형화되어 있어 길찾기를 위한 공간적 변별력이 부족하고, 기능에 따른 구획 나눔 및 공간의 주목성을 높여주는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구역차별화는 대규모 공간에서의 큰 구역을 여러 소구역으로 나누거나, 구역의 크기를 구분하여 사용자에게 쉽게 인지시킬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는 방법, 마감재 및 컬러 등을 이용하여 시각적 변별력을 제공하거나, 조명의 배치 및 조도의 밝기를 조절하여 공간의 집중성을 높여 길찾기를 위한 시각적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실제 사례의 경우, 마감재 및 컬러의 사용으로 구역차별화가 부분적으로 반영되어 있으나, 특정 요소에 한정되거나 전체 로비 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시각정보화는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접근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명시성이 높은 색채를 활용하여 시각적 주목성을 높여주는 방법, 정지 상태에서 뿐만 아니라 보행과 같은 연속된 동작 중에도 정보를 지각할 수 있도록 언어적 기능과 동시에 시인성이 강조된 사인체계의 사용, 주위환경의 정보의 과부하 수준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식별성을 강조하여 위치를 예측 가능하게 하여 목적지까지의 도달이 순조롭도록 도움을 주는 방법 등이 있다. 사례의 경우, 특히 시인성이 강조된 사인체계나 미디어적 요소를 도입하여 공간위치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도 있으나 그 적용이 소극적이고, 그 밖의 대부분의 사례지에서는 시각정보화를 통한 정보제공의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고 있다.

넷째, 랜드마크 구축은 사람들이 방향을 바꿔야 할 지점의 위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길찾기를 용이하게 하고, 과장된 스케일이나 독특함을 부여하여 흥미를 유발하거나 강한 인상을 주는 랜드마크는 사용자에게 쉽게 재기억되어 길찾기에 도움이 된다. 사례에서도 실내에 조형물 및 벽면녹화 등을 랜드마크적 요소로 구축하여 장소의 정체성을 부여하려는 시도가 보이고 있으나, 공공청사의 건축적 아이덴티티를 우선적으로 중시하는 경향에 의해 조형적 요소 등의 도입은 실내보다 실외를 우선시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상과 같이 길찾기를 위한 공간디자인의 유형과 환경정보적 기능을 분석하였고, 사례조사를 통해 현황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제안하였다. 즉각적인 공간

의 효율성이나 디자인 평가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간디자인의 심미적 관심에 비해 길찾기의 효율성은 다소 간과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실제적인 공간사용자의 관점에서 보면 공공청사의 길찾기를 위한 디자인적 배려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사용자 인지 패턴이나 특성에 기초하여 길찾기 요소들의 심층적인 분석과 함께 구체적인 디자인 해법에 관한 지속적 연구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 권선국, 문종훈, 주우일, 신동규 (2012). 『실내건축 디자인 총론』. 서우.
- 김문덕 (2001). 『실내디자인 각론』. 광문각.
- 김소연 (2003). 「복합상업시설 내부에서의 공간구조분석과 길찾기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신혜 (2008). Wayfinding을 고려한 공공시설의 사인 시스템. 『한국기초조형학회』, 9(5), 137-147.
- 박경하 (2012). 「길찾기능력이 시지각정보와 방문자 태도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혜경 (2007). 장소인지요소로서의 실내 패턴 활용에 대한 연구. 『한국기초조형학회』, 8(11), 315-329.
- 배현미 역 (2006). 『인간심리행태와 환경디자인』. 보문당.
- 송현지 (2013). 「지하철 환승공간에서 경로탐색(Wayfinding)을 위한 시환경 지각요소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안은희 (2004). 「대규모 상업시설물의 환경특성과 길찾기 성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오인욱 (1999). 환경 인지적 접근에 의한 고속철도역사의 실내디자인 방법론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1(12), 82-88.
- 오인욱 (2001). 『실내디자인학』. 기문당.
- 위키백과. (2013.3.19), <http://ko.wikipedia.org/wiki/>
- 윤혜주 (1990). 「지역문화공간을 위한 환경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경아 (1997). 「경로탐색을 위한 종합병원외래진료부의 실내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승빈 (1993). 『환경심리행태론』. 보성문화사
- 정무용, 안경환, 민병호, 최윤경, 이경훈 (2009). 『건축디자인과 인간행태』. 문운당.
- 정진우 (2011). 경로전달에 있어서 랜드마크의 인지적 속성과 그 사용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18(12), 127-135.
- 정진팔 (1996). 「대규모 지하공간의 길찾기를 위한 디자인요소 추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기중 (2007). 「종합병원 외래진료부의 진료인지 계획에 관한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